

“사측·어용 합작 가이드라인 돌파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 ... “치욕스런 과거 돌아갈 수 없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전 조합원이 두 번째 전면 파업을 단행했다. 지회는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어용노조 이용 착취, 죽음의 현장, 이대로 살 수 없다”, “어용노조 가이드라인 투쟁으로 돌파하자” 라고 외치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금속노조는 11월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결의대회’ 를 열어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기 투쟁을 선언하고, 한국타이어지회 투쟁에 힘을 실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 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80년 동안 노동자탄압 공장, 죽음의 공장이었다” 라면서 “금속노조가 다수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어용노조 60년 역사를 갈아엎는 결심으로 올해 투쟁에 임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우리는 노동자가 주인으로 사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라며 “노예 같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희망찬 미래로 나갈 것인가 결정하는 투쟁이 올해 임단협 투쟁이다” 라고 격려했다.

김용성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

국타이어지회장은 투쟁사에서 “금속노조와 지회가 바라는 것은 임금 인상보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희망이다” 라면서 “한국타이어 현장은 이제 관리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통제에 놓여있다. 노동자 현장 통제를 놓치고 빼앗기면 더욱더 치욕스럽고 어려운 현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김용성 지회장은 “사측에 조현범 회장 면담을 요청했다. 사측은 조 회장이 교섭과 아무 연관 없다고 변명한다. 우리는 조 회장만이 한국타이어 교섭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라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조현범 등 조씨 일가가 계열사에 웃돈을 주고 부품을 산 뒤 100억 원이 넘는 사익을 편취한 사실을 공정거래위가 밝혔다” 라며 “윗물이 썩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교섭 가이드라인 사태가 벌어졌다. 사측과 어용노조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돌파하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연대 투쟁사를 통해 “민주노조가 쟁취한 1천 원 인상과 자본이 어용노조에 주는 1천 원의 가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투쟁한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와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은 대회 막바지에 2022년 투쟁 승리 결의를 다지며 ‘민주노조 사수’,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힘내라 한국타이어지회’ 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소수노조 상태에서 사측의 탄압과 회유에 맞서서 투쟁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지회는 11년 만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사측에 2022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금속노조가 대표노조 지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업노조와 합의했다.

한국타이어지회는 ▲임금 5.6% 인상(물가인상률 최소 반영) ▲생산격려금 100만 원 + 타결금 200만 원 ▲임금피크제 단계 폐지·임금피크제 1년 단축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 임금인상 적용 ▲임금피크제 폐지TF팀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 죽이는 덴소 자본 조사해야

위장청산 철회·불법 대체생산 중단 촉구 단식농성 돌입 ... “280명 조합원 죽지 않도록 함께 하자”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 지회 한국와이퍼분회가 모기업 일본 덴소와 덴소코리아의 위장청산 철회, 불법 대체생산 중단, 덴소코리아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 지회, 한국와이퍼분회는 1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위장청산 철회, 불법 대체생산 중단 촉구 한국와이퍼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규선 노조 경기지부장과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장은 국회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단식에 들어갔다.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외국 자본이 국부를 유출하고, 국민을 마구 잡이로 일터에서 자르는데도 방관한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었다.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장은 “한국와이퍼는 조합원들에게 12월 31일 청산 정리해고를 통보했다”라며 “해고는 살인이다. 너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이것은 사회의 타살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윤미 분회장은 “범죄에는 반드시 범죄자가 있다. 범죄자를 조사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며 “한국와이퍼만 특별근로감독하면



위장청산과 해고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덴소코리아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최 분회장은 “반쪽짜리 특별근로 감독하는 사이 280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려 생존권을 박탈당할 것이다”라면서 “노동부와 국회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살해당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조사해 범죄 집단과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규선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경기지부와 조합원들은 한국와이퍼 청산 철회와 고용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와이퍼분회 동지들과 함께한다. 금속노조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함께 하자”라고 당부했다.

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대량해고 근본 원인은 일본 덴소 자본의 고의적자 기획청산임이 국정감사와 MBC 보도로 드러났으며, 한국와이퍼에서

노조법 위반 불법을 기획·실행한 원청 덴소코리아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1월 2일 노동부에 단협 위반, 불법 대체생산, 부당노동행위, 불법매각 혐의로 덴소코리아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덴소코리아 조사를 거부하고 한국와이퍼 특별근로 감독을 하고 있다.

노조는 덴소코리아가 ▲불법 대체생산 업체 엘소 창원공장 운영 ▲한국와이퍼 계속 운영 결정권 ▲한국와이퍼 단체협약 체결 지배 개입 등 특별근로감독을 반드시 시행할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덴소코리아의 와이퍼 사업부 매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각업체로 추정하는 DY오트가 와이퍼 시스템 전체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왜 한국와이퍼만 거부하는지, 노조 해산과 인적청산을 위한 불법매각인지 정확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